

화학경제연구원

Winning Decision with CMRI

2010 화학산업 10대 이슈

- 목 차 -

요 약	1
이슈 1 : 중동 공세 본격화 위기 직면	7
이슈 2 : 중국 시장의 이탈 가시화	15
이슈 3 : 新3고 시대 수익성은 반토막	20
이슈 4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화학기업의 고뇌 심화	26
이슈 5 : 화학기업, 12억 인디아 시장 파고들기	34
이슈 6 :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 속 新강자 등장	43
이슈 7 : 화학기업이 新에너지기업으로 환골탈태	49
이슈 8 : 화학기업, 新전자화학으로 체질개선 중	55
이슈 9 : 물산업 투자 봇물	63
이슈 10: 석유화학산업 한국 '空洞化' 확대	69

발간: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팀 문의 : <u>Consulting@chemlocus.com</u> 발간일: 2010년3월 **CMRI**

2010년 3월 2일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팀

발간일: 2010년3월

(02)2108-8070 consulting@chemlocus.com

2010 화학산업 10대 이슈

5R(5 Risk)+5C(5 Chance); 위기를 기회로

2010년은 화학산업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는 해다.

2009년 생각지 못했던 중국의 수요 회복에 수익을 거두었던 한국 화학기업은 2010년 대 내외적인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 중국 수요 이탈, 중동 신증설 공세, 新3고에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까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인디아와의 CEPA협정 체결로 성장의 기회를 잡았으나 그 효과는 단기적 가시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화학기업들은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투자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 화학산업의 空洞化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기업들은 내부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기업은 구조개편으로 선택과 집중하고 사업은 新에너지, 新전자화학, 물산업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시점인 2010년, 국내 화학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해 글로벌 화학시장에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CMRI가 바라보는 화학산업의 10대 이슈를 제시한다.

석유화학의 4대 위험 요인

이슈 1: 중동 공세 본격화 위기 직면

중동의 신증설에 대한 논란은 201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야기되던 중동의 석유화학 공급과잉 문제는 실제가동의 지연, 범용 제품 생산 문제로 '블랙스완'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2010년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은 5가지의 전개가 예상된다.

첫째, 1년~1년6개월 지연되던 플랜트 증설은 완료되고 가동을 본격화 될 것이다. 둘째, 에탄베이스의 플랜트는 에탄 수급 타이트로 원가가 상승하지만 여전히 원가 경쟁력을 가진다. 셋째, 에탄베이스의 에틸렌과 그 유도제품에서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합성원료의 생산비중이 증가한다. 넷째 에틸렌 뿐만 아니라 프로필렌과 PP 등 비에틸렌계 제품이 순수출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의 수출 본격화가 예상된다.

한국기업은 중국시장에서 중동기업과 가격 및 마케팅 경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동의 피드 다변화도 나프타 수급타이트와 직결돼 한국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동 현지진출을 통한 저가원료 확보, 고객의 충성도 제고를 통한 협력관계 공고화,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필요하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동의 변화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업경영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슈 2: 중국 시장의 이탈 가시화

전세계 합성수지 수요의 20%를 소비하는 중국의 이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WTO 이후 2번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WTO를 기점으로 자유무역 체계, 세계의 거대 플랜트로 전환됐다면 이제는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최대 수요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010년 중국 정부의 민생 위주 경기부양책에 단기적으로 엑스포 효과가 석유화학수요를 견인해 한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만하다.

반면 중국이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진화하기 위한 '실리 중심' 전략을 택하는 것은 한국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자급률 향상, 차이완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 경제를 중국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배타적 관계였던 타이완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타결을 2010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부품 분야는 ECFA 발효 후 가장 먼저 관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돼 한국 석유화학 업계에 도전이 되고 있다.

거대한 수요 시장 중국, 2010년의 내수부양책 확대, 상하이 엑스포 효과에도 불구 중국 자급률 향상, 중국 내 중동과 한국기업간 경쟁 심화, Chiwan 협력 강화에 따라 시장 이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슈 3:新3고 시대 수익성은 반토막

高유가, 원화의 高평가, 高금리의 新3高가 화학기업에겐 '3苦'가 될 전망이다.

2009년 3/4분기 6대 NCC 영업이익은 11.3%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2010년은 한국 석유화학기업에게 이러한 수익을 이어가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중국이 경기부양책 지속, 출구전략의 진행은 서서히 진행, 상하이 엑스포의 단기적 시장 견인으로 수요는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가치 절상, 금리인상의 新3고 문제가 한국 석유화학기업의 수익성을 반토막낼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내외까지 상승하고, 원화는 위엔화 평가 절상, 달러화 약세로 절상될 것이다. 국내 금리 인상이 예고돼 수요기업 생산 가동률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의 상승은 첫째, 원가 부담 확대로 직결될 것이다. 반면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섬유의 3대 유도품 시장은 중국 자급률 상승, 중동과의 경쟁 심화로 원가의 제품가격 전가가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유가 상승은 중동의 지연 프로젝트를 가속화해결과적으로 한국에 위협이 될 전망이다.

위안화 대비 원화의 평가 절상은 유도품 판매 가격 하락과 직결될 전망이다. 중국의 위안화 5% 이상 위안화 절상이 석유화학 수출 가격 하락 및 화학기업 수익 악화의 원인이 될 전망이다.

금리인상은 국내 화학제품 수요 감소와 연결되며 수익악화를 견인할 전망이다. 고무 및 플래스틱 제품 생산성은 금리 인상과의 상관관계가 심화되고 있어 금리인상은 내수판매 감소와 직결될 것이다.



이슈 4: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화학기업의 고뇌 심화

2010년 멕시코에서 열리는 차기 기후변화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안 도출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이 개최하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브라운 총리는 "지금까지의 G20 정상회의가 금융위기와 관련된 경제적 이슈의 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기후변화·안보·에너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 녹색성장 의제를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 질서를 새로이 재편하는 데에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자 한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간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하면서 회의 막판에 합의된 코펜하겐 협정문(Copenhagen Accord) 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정책이 경제회복에 맞춰지면서 환경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났기때문이다.

한국은 MB정부의 강력한 지지 아래 탄소세 도입, 배출권 거래시장 개소라는 구체적인 방침을 지속할 것이다. 2009년 에너지 다소비 기업 10곳 중 5곳이 석유화학기업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협약 타결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의 비용 부담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됐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동시에 온실가스 과다 배출 산업으로 지목받아 온 석유 화학기업들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기회, 인디아

이슈 5 : 화학기업, 12억 인디아 시장 파고들기

한·인디아 CEPA 협정(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 reement)이 2010년 1월 1일 발효됐다.

한국은 2006년 첫 협상을 시작해 3년 6개월 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CEPA를 발효했다.

인디아는 세계 2위의 인구, 세계 4위의 소비시장이지만 관세장벽이 높다. 한국은 CEPA 체결로 상품, 서비스, 원산지, 투자,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디아의 동반자가 된다.

CEPA를 통한 효과는 양허수준이 낮고 관세인하 및 철폐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BRICs 국가 중 최초로 FTA를 성사시켰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중·장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석유화학분야에서는 합성수지, 합성고무의 관세율이 5~12.5%에서 관세 인하 및 철폐로 이어져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산이 인디아산 제품에 비해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갖춰 수입증가는 오히려 제한적일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10건의 반덤핑 조사도 완화조치를 기대할만 하다.

정밀화학과 섬유를 포함한 인디아산 화학제품 수입액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800만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의약품 중간재와 염료, 안료 중간재는 수입이 확대되는 반면 최종제품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존을 위한 변화(Transformation)

이슈 6: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 속 新강자 등장

대외 환경 전망이 어두워지자 석유화학업계의 대내적 구조개편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9년 SK에너지와 LG화학은 분사를 통해 구조를 개편했다. SK에너지는 윤활유 사업부문을 분사해 "SK루브리컨츠"를 설립했고 LG화학은 소비재에 가까운 산업재 시장을 분사해 "LG하우시스"를 공식 출범했다.

호남석유화학과 OCI는 구조개편을 시도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칼 합병은 "주식매수권 청구"에 막혀 무산에 그쳤다. OCI의 CCC인수도 공정위의 규제에 위배돼 전면 백지화됐다.

2010년 석유화학업계의 구조개편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SK에너지는 화학사업부의 중국 이전을 시작할 것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동부그룹은 반도체 중심의 전자화학과 기업 근간인 비료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모두 구조 조정할 예정이다.

M&A를 통한 성장전략을 세운 호남석유화학도 구조개편의 선두를 이끌 전망이다. 호남석 유화학은 최근 제시한 글로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풍부한 내부 보유 현금을 이용해 국내 M&A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이슈 7: 화학기업이 新에너지기업으로 환골탈태

대내외적 불안요인이 화학기업의 에너지기업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시각과 더블딥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 존하고 있다. 유가, 원화, 금리 강세로 대내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화학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환골탈태를 준비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가시화되고 있는 수요 및 수익 감소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화학기업은 기존 주력 사업의 강화와 함께 新성장사업인 에너지화학에 눈을 돌리고 있다. CMRI에서는 화학기업이 에너지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이세 가지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1. 기존 사업 확대 유형 : 기존 에너지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한 규모의 경제 유형.
- 2. 부산물 활용 유형 : 기존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업 확대 유형.
- 3. 신규시장 개척 유형 : 사업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정하여 신규 진입하는 유형.

기존사업확대의 유형에는 OCI의 폴리실리콘 사업 확대, SK에너지의 해외 광구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물 활용 유형으로는 삼성토탈의 석유제품 사업 진입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신규시장 개척 유형은 SKC솔믹스의 태양광 사업 진출, GS칼텍스의 연료전지시장진입 등이 2010년에 계획되어 있다.

에너지 기업으로의 환골탈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사업성 고려, 원천기술 확보, 원료부터 제품까지 수직계열화의 3대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슈 8: 화학기업, 新전자화학으로 체질개선 중

화학기업들이 차세대 핵심사업 육성의 일환으로 新전자화학에 투자해 기업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전통산업에 속하는 화학산업에 있어 사업다각화는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분야 중하나이다. 특히, 지난 5-6년간 화학기업들이 PR(Photo Resist), Stripper 등 용제형 Wet Chemical 전자재료 부문에 투자했다면, 이들 제품의 수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전통전자재료 시장위주의 투자에서 이탈해 유망성장 산업에 근간을 둔 소재산업인新전자화학으로의 전이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화학기업들은 2010년 소위 '뜨는 아이템'의 소재산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의 LED사업 진출, LG화학의 LCD 패널 사업 진출, 중견기업의 CNT소재투명전극 필름사업 진출 등이 대표적이다. 또 LCD는 물론 LED, 터치패널 관련 제품의 판매확대에 힘입어 기존 PET 필름 등을 생산하던 SKC, 코오롱의 증설도 눈에 띤다.

2009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디스플레이, LED, 태양광 산업이 전년대비 10%이상의 고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며, 이들 소재 부문으로의 신증설 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재료 사업은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특성상 적기 개발, 적기 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고효율, 고성장성을 두루 갖춘 산업을 근간으로 한 화학소재 투자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학기업이 전자재료 사업 부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품초기 개발과 디자인 단계부터 전방산업과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슈 9 : 물산업 투자 봇물

2010년은 물산업 추진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수도관망 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2020년 유수율 90%, 수도분야 기술력세계 5위 진입'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 '물환경 기준 강화'를 위한 COD, TP 저감대책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0년에는 영등포 정수장에서 막여과 고도정수시설 설치 사업 및 막여과 설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물산업 규모가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수처리 방식이 기존의 화학처리나 증류 방식에서 멤브레인 방식으로 대체되자 투자 방향도 수처리 멤브레인 분리막으로 집중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최근 멤브레인 시장 투자현황은 대표적으로 웅진, 코오롱, 제일모직을 들 수 있으며 2-3개 업체가 추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 동양매직이 2010년 들어 물관련 산업을 새로운 목표사업으로 추가하는가 하면, SK케미칼도 하수폐수처리장 위탁운영 전문업체 태영인텍의 지분 25%를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확보해 물 환경 사업에 진출했다. 물관련 산업은 이미 두산과 웅진, 코오롱그룹등도 진출해 있어 점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3500억~5000억달러의 세계 물산업시장을 놓고 Dow Chemical 등 기존 글로벌기업과 한국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화학경제연구원 _____ 5



'한국'이 아닌 해외투자를 선택하는 이유

이슈 10: 석유화학산업 한국 '空洞化'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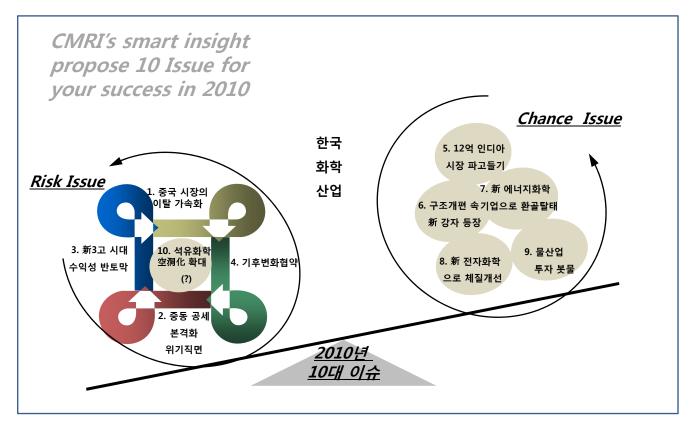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국내 직접투자는 줄어들고 해외 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2012년까지 3년간 총 14조4000억원의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천NCC는 2700억원 투자, LG화학은 2009년부터 약 1000억원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신설이나 대규모 증설 없이 기존설비의 효율성 제고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동의 대규모 신증설과 중국 자급률 향상이라는 위기 앞에 원료, 인건비, 운송비 등 코스트 비용이높고 이미 상당부분 과잉 투자되어 있는 국내에 대규모 직접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국내가 아닌 해외투자는 반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SK에너지는 SINOPEC과의 합작 투자로 에틸렌 80만톤 설비를 가동해 내수기업 형태로 진화해 현지화할 전망이다. 한화석유화학은 사우디의 시프켐과 합작, 중국 PVC 생산공장 신설, 타이 ASR 공장 신설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진출을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LG화학의 ABS 신설, 호남석유화학의 중국투자 지속, 금호석유화학의 중국내 7대 생산기지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현지 투자 증가는 국내 플랜트 시설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석유화학 산업 공동화 진행은 플랜트 설비 노후 및 석유화학산업 공동화 가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중국 등 해외 플랜트와 국내 플랜트의 이원화 전략과 지속적인 공정개선이 필요하다. 중국 등 해외 플랜트는 주로 저가의 범용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플랜트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해야 할 때이다.



6



화학경제연구원

"시자분석 보고서"의 "Power"

CMRI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시면 Follower → First Mover(Innovator)가 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11
스페셜티	&
전자케미	칼

리 포 트 명	발 간 일	분 량	가 격(원)
2차전지 시장확대에 따른 성장전략 (2009)	2009년 10월	114 Page	550,000
나노소재, 미래 화학산업의 핵심 (2009)	2009년 9월	70 Page	550,000
LED 부품소재 시장 선점 전략 (2009)	2009년 7월	95 Page	550,000
PCB 부품소재 시장 포지셔닝 (2009)	2009년 5월	90 Page	550,000
전자용 특수가스 시장분석 (2008)	2008년 8월	84 Page	550,000
전자용 솔벤트 시장분석 II (2008)	2008년 8월	77 Page	550,000
전자재료 시장분석 Ⅲ (2006)	2006년 9월	115 Page	550,000
전자용 솔벤트 시장분석 I (2005)	2005년 3월	85 Page	550,000
LCD 디스플레이 재료 시장분석 (2004)	2004년 10월	97 Page	550,000
2차전지 재료 수요예측 (2004)	2004년 7월	119 Page	550,000
전자재료 시장분석 ॥ (2004)	2004년 5월	147 Page	550,000
실리콘 시장분석 (2004)	2004년 4월	75 Page	550,000
솔벤트 시장동향 및 분석 (2004)	2003년 10월	100 Page	550,000
PDP 디스플레이 재료 시장분석 (2004)	2004년 3월	90 Page	550,000
불소화합물 시장동향 및 분석 (2003)	2003년 10월	80 Page	550,000
제지약품 시장분석 ॥ (2003)	2003년 4월	129 Page	550,000
물 화학(Water Chemicals)산업의 성장동력 (2010)	2010년 4월	120 Page	550,000
탄소시장 확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2009)	2009년 9월	115 Page	550,000
바이오에너지 시장분석 및 전망 (2008)	2008년 8월	90 Page	550,000
		3	

Section2 그린에너지 & 환경케미칼

Section3 폴리머 & 플래스틱

태양광산업의 Value Chain 분석 (2008)	2008년 7월	145 Page	550,000
바이오에너지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시장분석 및 정책진단 I (2006)	2006년 3월	100 Page	550,000
슈퍼엔지니어링 플래스틱 시대오는가? (2009)	2009년 4월	90 Page	550,000
열경화성 및 특수수 지 시장분석 및 전망 II (2008)	2008년 7월	89 Page	550,000
건축자재 시장분석 및 성장전망 II (2008)	2008년 7월	103 Page	550,000
전자 및 자동차용 EP 시장분석 Ⅲ (2008)	2008년 7월	126 Page	550,000
전기전자용 고투명 필름 시장분석 (2007)	2007년 1월	135 Page	550,000
열경화성 수지 및 특수수지 시장분석 (2005)	2005년 1월	103 Page	550,000
식품포장용 플래스틱 시장분석 및 전망 (2004)	2004년 11월	134 Page	550,000
TPE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2004)	2004년 9월	90 Page	550,000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분석 (2004)	2004년 6월	102 Page	550,000
긴축자재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I (2004)	2004년 1월	137 Page	550,000
자동차용 플래스틱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2003)	2003년 8월	190 Page	1,100,000
Engineering Plastic 메이커 경쟁력 분석 (2003)	2003년 2월	140 Page	550,000
2010년 화학산업 10대 이슈	2010년 3월	76 Page	무료*
중동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분석 (2010)	2010년 3월	196 Page	1,100,000
한국 및 글로벌 화학기업 임금구조 분석 (2009)	2009년 4월	130 Page	550,000
2013 석유화학 가격예측 (2009)	2009년 2월	146 Page	무료*
2010 석유화학 가격예측 (2006)	2006년 10월	150 Page	무료*
하고 서오히하사어 조자기 제마 (2006)	2006년 1월	10E Dogo	FF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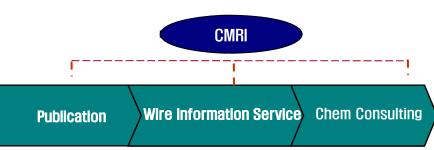
Section4 석유화학

CMRI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 사업부 TEL: 2108-8070 homepage: www.cmri.co.kr e-mail: consulting@chemlocus.com

한국 석유화학산업 중장기 전망 1 (2006) 2006년 1월 105 Page 한국 석유화학산업 중장기 전망 ॥ (2006) 2006년 1월 126 Page 550,000 중국 석유화학시장 분석 및 전망 (2005) 2005년 11월 175 Page 550,000 유가상승이 석유화학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5) 2005년 9월 122 Page 550,000 한-중-일 FTA가 한국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5) 100 Page 2005년 5월

^{*} 무료보고서 화일은 www.chemlocus.co.kr 또는 cmri.c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격은 VAT포함



- Chemical Journal (since 1991) (Weekly chemical market magazine)
- Chemical Yearbook
- Petrochemical **Industry book**
- ChemLocus.co.kr
- Chem Market News DB
- Petrochemical Price DB
- ▶ Petrochemical S&D DB
- Chemical Company DB
- Seminar/Conference
- Market Analysis
- Demand Forecasting
- Price Forecasting
- **New Business** Development
- Feasibility Study
- Management Strategy
- Policy & Strategy **Establishing**

onsulting			

마케팅 전략수립 신규 투자품목 발굴

폴리머/플래스틱

스페셜티케미칼

석유화학

수익분석 업타당성 검토

Expertise Industry	Products
Petrochemical	Olefins(C1, C2, C3, C4 Derivatives.), Aromatics, Synthetic Fiber Materials
Performance Polymer	Electronic/Automobile/Construction Polymers, Engineering Plastics, Super EP, TPE ···
Specialty Chemicals	Electronic Chemicals, Plastic Additives, Catalyst, Environment Chemicals…
Fine Chemicals	Paint & coating, Adhesive, Surfactant, Pigment, Chloro-Alkari, Silicone, Fine Ceramic…

화학경제연구원

Phone: +822 2108-8070 Fax: +822 2108-8077 consulting@chemlocus.com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화학경제연구원에게 있으므로, 무단 전재 및 판매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